2026. 11.

브라질 브라질 최초의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라이선싱 계약으로 종결(Folha de S.Paulo v. OpenAI)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교수
정태호

1. 개요

미국과 유럽 내 주요 언론사들은 AI 기업들이 허가 없이 자사의 유료 기사와 아카이브를 수집하여 거대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답변을 생성하여 언론사의 트래픽과 구독 수익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저작권 갈등의 흐름 속에서 남미 최대의 경제국이자 포르투갈어권 최대 언론 시장인 브라질에서도 이른바 'Folha de S.Paulo v. OpenAI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저작권 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2025년, 브라질 대표 일간지 "Folha de S.Paulo(폴랴 데 상파울루)"의 발행사인 "Folha da Manhã S.A."는 미국의 AI 기업인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제기했다.[1] 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생성형 AI 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최초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다.

2. 주요내용

1) 소송의 발단

2025년 8월 20일에 원고인 "Folha da Manhã S.A."는 브라질 상파울루 민사법원에 "OpenAI OpCo, LLC"(이하, "OpenAI"라 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는 OpenAI가 어떠한 사전 허가나 정당한 재정적 보상 없이 원고가 발행하는 Folha de S.Paulo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전문 저널리즘 콘텐츠와 아카이브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여 ChatGPT의 학습 및 운영에 활용했다는 점이었다.[3]

2) 소송의 진행 경과

1) Nuria López/Robert Daniel/Renata Idie,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Folha de S.Paulo v. OpenAI",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8.27.(https://www.daniel-ip.com/en/articles/brazils-first-generative-ai-copyright-dispute-folha-de-s-paulo-v-openai/)(최종접속일 : 2026.10.1.).

2) Ibid.

3) Luciano Teixeira, "Folha de S. Paulo vs. OpenAI: the dispute that could redefine copyright in the AI era in Brazil", newsletter, Campos Thomaz Advogados, 2025.9.1.(https://camposthomaz.com/en/ct-na-midia/folha-de-s-paulo-vs-openai-the-dispute-that-could-redefine-copyright-in-the-ai-era-in-brazil/)(최종접속일 : 2026.10.1.).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원고는 위와 같은 본안 소송의 제기와 함께 피고인 OpenAI가 원고의 콘텐츠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도 하였는데,[4] 상파울루 민사법원은 사안의 복잡성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5] 다만, 해당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를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6] 이후 해당 법원은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였다.[7]

3) 라이선싱 계약에 의한 상업적인 분쟁 해결 및 소송 종결

소송 제기 후 약 9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25일에 OpenAI는 Folha de S.Paulo 및 브라질 최대 뉴스미디어 포털인 UOL(Universo Online) 측과 최초의 상업적 콘텐츠 라이선싱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8] 해당 합의를 통해 앞서 제기된 소송의 원고는 OpenAI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소송을 전격 취하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 최초의 AI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판결 대신에 상업적인 분쟁 해결로 종결되었다. 결과적으로 OpenAI는 Folha de S.Paulo 및 브라질 최대 뉴스 포털인 UOL(Universo Online) 측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ChatGPT 생태계 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실시간 저널리즘(journalism) 콘텐츠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9]

4) 언론 보도에 의해 공개된 계약 내용[10]

① 실시간 콘텐츠 수급

Folha de S.Paulo 및 UOL 측은 자사 뉴스룸에서 생산하는 실시간 기사 및 속보 콘텐츠를 OpenAI의 ChatGPT 생태계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② 출처 명시 및 트래픽 재유도

ChatGPT가 브라질 정치, 경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이용자의 질의에 답변할 때, 양 언론사의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을 생성하며, 답변 하단에 원문 기사로 이동할 수 있는 직접 하이퍼링크와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

4) Nuria López/Robert Daniel/Renata Idie, supra note.

5) Robert Daniel/Nuria López, "Folha de S.Paulo v. OpenAI – Update on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9.9.(https://www.daniel-ip.com/en/client-alert/folha-de-s-paulo-v-openai-update-on-brazils-first-generative-ai-copyright-dispute/)(최종접속일 : 2026.10.1.).

6) Luciano Teixeira, supra note.

7) Robert Daniel/Nuria López, supra note.

8) PODER360, "OpenAI, "Folha" e "UOL" fecham acordo de uso de conteúdo no ChatGPT", poder midia, 2026.5.25.(https://www.poder360.com.br/poder-midia/openai-folha-e-uol-fecham-acordo-de-uso-de-conteudo-no-chatgpt/)(최종접속일 : 2026.10.1.).

9) Dani Braga, "Folha and UOL Sign Brazil's First OpenAI Deal to Supply Content to ChatGPT", Folha de S.Paulo, 2026.5.25.(https://www1.folha.uol.com.br/internacional/en/business/2026/05/folha-and-uol-sign-brazils-first-openai-deal-to-supply-content-to-chatgpt.shtml)(최종접속일 : 2026.10.1.).

10) PODER360, supra note.

③ 재정적 보상

양사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금 및 라이선스 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OpenAI는 언론사의 콘텐츠 제공에 상당하는 상업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3. 이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이 사건은 생성형 AI 기술의 급부상으로 촉발된 AI 기업과 언론 매체 간의 저작권 갈등이 법적 파국 대신 상생형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어 마무리된 브라질에서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11] 이 사건의 해결 방식은 영미권이나 유럽에 국한되었던 AI 라이선스 보상 체계가 라틴아메리카 등 비영어권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12]

브라질 최초의 AI 저작권 소송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의 전격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OpenAI는 안정적인 고품질 라틴아메리카 뉴스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고, Folha de S.Paulo 및 UOL 측은 AI 시대에 저널리즘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13]

이 사건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AI 저작권 분쟁에 중요한 교훈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은 AI 기술의 진보를 무조건 막아서거나 저작권을 무시하는 양측의 극단적 대립보다는, 정당한 보상과 명확한 출처 표기를 전제로 한 협력적 라이선싱 체계 구축이 생성형 AI와 언론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되고 있다.[14]

그런데 한편으로 OpenAI 등 대형 AI 기업이 Folha de S.Paulo 및 UOL 측과 같은 대형 언론사와는 거액의 라이선싱 계약을 맺지만, 소형·지역 언론사들과 개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 향후 미디어 시장 내 중소 언론사의 소외와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Dani Braga, supra note.
12) PODER360, supra note.
13) Dani Braga, supra note.
14) PODER360, supra note; Dani Braga, supra note.

참고자료

- Nuria López/Robert Daniel/Renata Idie,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Folha de S.Paulo v. OpenAI”,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8.27.
- Luciano Teixeira, “Folha de S. Paulo vs. OpenAI: the dispute that could redefine copyright in the AI era in Brazil”, newsletter, Campos Thomaz Advogados, 2025.9.1.
- Robert Daniel/Nuria López, “Folha de S.Paulo v. OpenAI – Update on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9.9.
- PODER360, “OpenAI, “Folha” e “UOL” fecham acordo de uso de conteúdo no ChatGPT”, poder midia, 2026.5.25.
- Dani Braga, “Folha and UOL Sign Brazil's First OpenAI Deal to Supply Content to ChatGPT”, Folha de S.Paulo, 2026.5.25.